

# 인간가치는 기술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 우리 삶의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1882년 3월 조선에 전화가 처음 들어왔다. 그리고 5년 뒤인 1887년엔 전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요상한 것 때문에 흥년이 들었다고 전선을 끊어버렸다. 이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선이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오자 가로등, 냉장고, 세탁기도 섬에 들어왔다. 덕분에 삶이 편해졌다. 1899년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증기 기관차가 도입되었다.

처음 시승할 때 몇몇 사람들은 구토를 했다.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보면 형편없는 속도였지만, 그 속도는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속도였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곧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앞으로 20년 뒤, 현재 7세 이하의 아이들 중 65%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 말인 즉슨 미래에는 현재의 일 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데, 그는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바이오센서 전문가들은 2024년경엔 전 세계 1조개의 센서들이 인간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예측한다. 센서 덕분에 교통사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는 엄청나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치른 세기의 대결은 한 사례가 된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다섯 번 바둑을 두었는데, 이 다섯 판의 대결로 구글은 시가총액 58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프로기사들이 분석한 ‘알파고’의 특징은 대세관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또 알파고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수를 둔다고 한다. 기존의 좋은 수, 나쁜 수에 대해 알파고는 인간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알파고의 기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바둑 기사들이 늘어났다. 알파고의 탄생은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과거엔 철학이나 문학이 이 물음에 답을 했지만 이제 과학도 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해했다’고 말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이해는 역사, 문화, 언어를 통해 유전되어온 판단의 결과로도 얻어진다. 새로운 발견

과 통찰로 우리의 이해는 여러 번 바뀌었다. 1922년,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주장이 큰 이슈가 되었다. 독일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가 발표한 대륙이동설 때문이다. 베게너는 1915년 『대륙과 대양의 기원』이란 책을 썼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의 책은 독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1922년 개정판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처음 언급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베게너가 가설(假說)로 대답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헛소리란 반응이 쏟아졌다. 베게너는 지질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의 유사성,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같은 근거에도 조롱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그는 독일에선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오스트리아에서 교수 자리를 얻어 연구를 이어갔다.

*“애초에 모든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

우연히 번득였던 발견의 기쁨이 너무 컸기에, 기상학자 베게너는 세인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개의치 않았다. 베게너는 현재 나뉘어져 있는 6개의 대륙이 과거 한 때 모두 한 덩어리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였다. 이 대륙(supercontinent)을 그는 그리스어로 ‘온 땅덩어리’(all lands)란 뜻의 ‘판게아’(pangaea)라고 불렀다. 베게너의 학설은 1960년대 중반 판구조론(plate tectonic theory)이 정립되면서 정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아이로봇」이란 영화의 원작자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가 한 말이다. 그는 보스턴 대 생화학 교수였지만, 탄탄한 스토리로 SF 소설의 3대 거장이 된 인물이다. 아시모프는 500권이 넘는 다작을 했는데, 그중엔 SF소설과 과학 분야는 물론, 셰익스피어, 성경, 수학, 역사에 관한 책도 있다. 발견(discovery)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다. 이는 어떤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 변화는 더 나은 시각을 준 발견과 통찰의 결과이다. 과학은 새로운 길을 따라 간다.

### 로봇의 진화로 대체 못할 기술이 있을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막에 난 오솔길은 아마도 인간이 지구상에 만든 가장 오래된 길일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다. 굽주림과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은 시속 5km의 속도로 걷는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해변으로 몰려가 휴대전화를 흔든다. 이웃 나라 소말리아에서 오는 저렴한 휴대전화 신호를 받기 위해서이다. 기술은 가난한 난민의 삶도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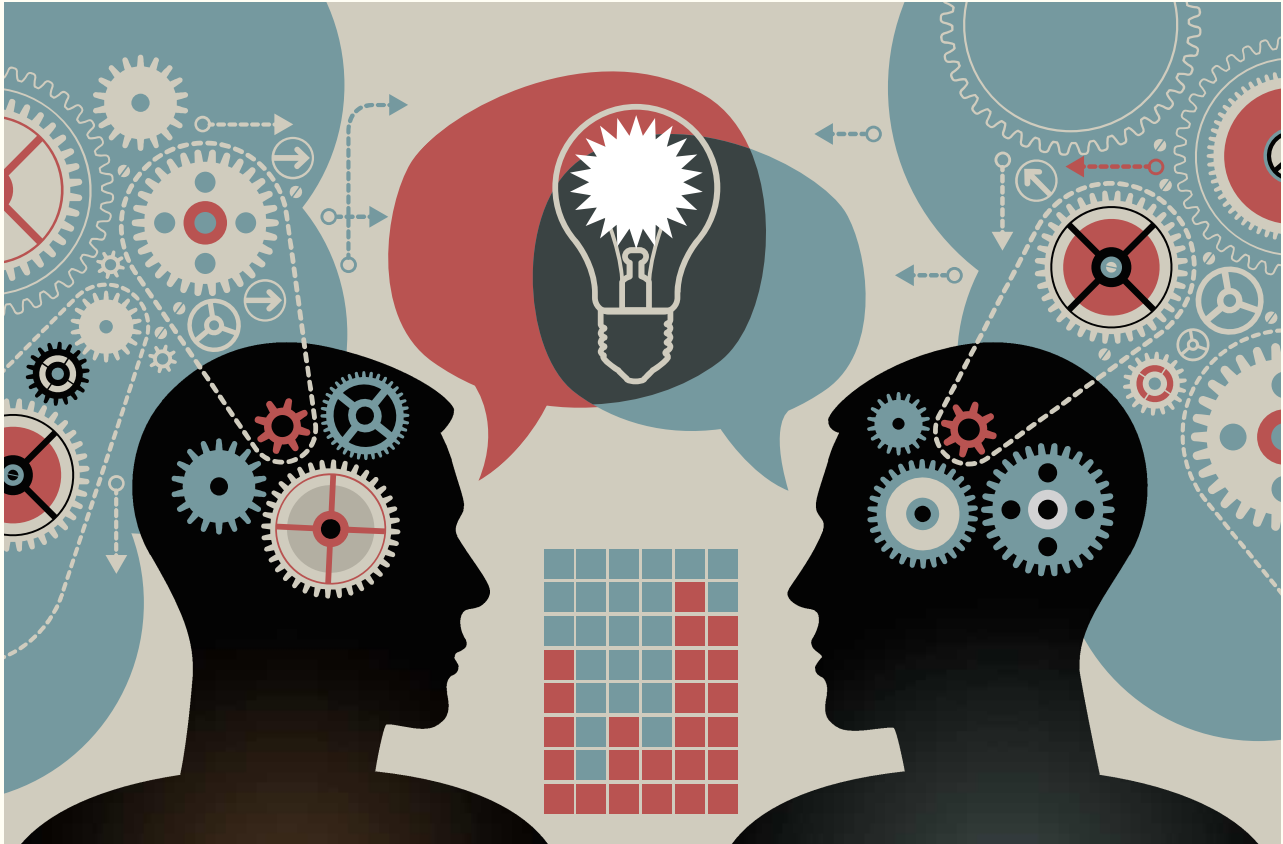
변화의 시대는 벌써 시작되었다. 2030년에 이르면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기술의 발달은 엔지니어, 노동자, 의사, 요리사, 변호사, 교사 같은 직업군을 빠르게 허물 것이다. 물론 드론 전문가, 3D 프린터 전문가,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플래너, 안드로이드 로봇 개발자, 증강 현실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변화는 직업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재편하고 있기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요즘 광고문구나 슬로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상상력'인데, 이 단어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SF 소설이다.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아바타」, 「스타워즈」, 「매트릭스」, 「백 투더 퓨처」 같은 영화부터 「인더스텔라」 같은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 영화 「아바타」에선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아바타 로봇이 등장한다. 이것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갖는 한계를 줄여준다. SF 영화에서 인간은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를 닮아간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들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화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인간이 전투나 위험한 노동을 대신하게 시키려고 만든 인조인간이 있다. 레플리칸트(Replicant)로 불리는 이들은 4년의 수명을 갖고 살지만, 인간과 거의 동일하다.

이들이 외계 행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일부는 지구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이들을 찾아내어 처형한다. 그 일을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라 불리는 경찰이 맡는다. 블레이드 러너는 테스트 기계를 통해 인간과 레플리칸트를 구별해 내고 레플리칸트를 사살한 뒤 '폐기했다'고 말한다. 즉 레플리칸트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를 찾아 수명을 연장 받으려던 레플리칸트는 결국 제거되고 만다.

마지막 남은 인물이 로이인데, 그 역을 맡은 Rutger Hauer가 산성비를 맞으면서 하는 대사가 영화의 백미로 꼽힌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주인공 데카드와 대결을 펼친다. 데카드가 건물 난간에 떨어져 추락하는 순간, 로이가 손을 뻗어 구한다. 그리곤 빗속에 앉아 이렇게 되뇌인다. "난 너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봐 왔어 ... 그 모든 기억이 곧 사라지겠지만, 빗속의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인조인간 로이가 데카드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영화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 영화는 인간이란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렌즈인지도 모른다. 로이스 타이슨(Lois Tyson)이 쓴 문학 비평서가 있다. 『비평 이론의 모든 것』(Critical Theory Today)이다. 재미난 것은 저자가 폭우를 피해 주차장 차안에서 자크 데리다의 「인문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놀이」란 글을 읽었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대목이다. 그가 울은 것은 데리다의 글이 감동을 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읽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았다.

###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각 시대마다 ‘시대정신’(spirit of the age)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개념이 있다. 이 시대정신은 다수의 여론으로 형성되기에, 개인이 그 영향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몇 해

전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발표했을 때, 그것을 사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다. 아이패드를 살 여유가 없었던 그 청년은 자신의 신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청년은 신장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 했다. 그에게 아이패드는 삶의 목표였고 자신의 전부였다.

시대마다 필수품이 있었다. 요즘 성공한 남자들이 비싼 스위스 시계로 자신을 차별화시키지만, 한때 몽블랑 만년필이 유행했었다. 그 이전엔 고급 셔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시계, 만년필, 셔츠는 당대의 필수품이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출간되었음에도 여전히 읽혀진다. 바로 소설 속 인물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답을 오해하면 개츠비처럼 성공이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인간에게 노동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노동은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인간은 직업

을 통해 사회 속에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직 혹은 실업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첨단사업이든, 오지탐험이든, 도전이든, 항상 달콤한 열매는 준비하고 노력한 자에게 돌아간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문젠의 남극탐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보라. 그들은 실패를 도전으로 읽었다. 때때로 무모함이 지나쳐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쥘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요즘 직장인들은 경제적 자유로움과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달콤한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더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은 어떤 이에겐 삶의 여유를, 어떤 이에겐 경제적 부유함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격랑이 덮칠 때가 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두렵고 낯선 감정이 의식 속으로 밀려든다. 상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말하지만, 깊은 상실은 치유가 쉽지 않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지 감정을 다스리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약함이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 4권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인간을 만들며, 행복은 연약함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안정과 편함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어떤 이는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경고한다. 자신과 타인의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기술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앞으로도 과학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바꿔 갈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와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뿜어내는 산소로 두 사람이 하루를 산다. 하지만 이결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다들 큼직한 열매라고 여기지만, 어떤 이는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꾼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4/22일자 발행)



####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쿣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